

한국 문헌정보학의 재건

- 전술 전환과 관련하여 -

김 정 근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새해의 벽두에 서서 우리 문헌정보학의 위상을 생각해 본다. 이 땅의 학문 세계에서 문헌정보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쯤이나 되는 것일까? 그것은 확실하고 견고한 내적 실체를 인정받는 기초 위에서 외연을 넓히기 위한 공격경영을 감행할만한 넉넉한 위치인가? 아니면 그와는 정반대인가? 그래서 아직은 내적 실체의 확립이라고 하는 기초 과제에 몰두해야 할 상황인가?

신문에서 2000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집계표를 검토하면서 하나의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그 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상황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패턴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전국의 4년제와 2년제 대학의 학생모집단위에서 '문헌정보학'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다. 몇몇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만 눈에 띄는 정도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제 대학에서의 문헌정보학은 학과의 형태가 아닌 학부제 하의 전공으로만 남는 대세 속에 들어가 있으며,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승산이 있는가?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다. 관련자들은 전공간의 벽이 안전장치 없이 완전히 트이게 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개성과 소질에 따른 전공 선택에 익숙하지 못한 교육 수요자의 조건과 학부제하의 인기 내지

힘의 논리 틈바구니에서 문헌정보학 연구자가 느끼는 상실감과 불쾌감은 곧바로 학문의 위기 의식으로 연결된다. 이 땅에서 문헌정보학은 과연 존속할 것인가? 아니면 폐기되고 마는 것인가? 이제 연구자가 느끼는 압도적 위기감 속에서 이 나라의 전체 학문 판도 내에서 문헌정보학의 위상을 가늠해 보고자 한 처음의 발상은 더욱 간절한 욕구로 변한다. 이와 관련해서 위기 극복의 방안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자못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땅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 특히 다수의 여론형성자들은 그 대부분이 지난 1990년대 내내,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서부터 일종의 공격형 경영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보'와 '컴퓨터'를 앞에 내세우고, 다른 한편 '도서관'을 평가절하 하면서 오로지 21세기 정보 시대, 지식 기반 사회를 오메불망 노래하며 밤낮을 지새웠다. 그것은 인기지향의 전술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인기 폭락현상이 웬 일인가? 위기는 또 웬 말인가? 번영과 발전은커녕 존폐의 위기를 말하는 처지가 되었다니 이 무슨 마른하늘에 벼락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문헌정보학계의 여론형성자들이 이제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정보'와 '컴퓨터'가 고객에게 도무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단 말인가? 보아하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우리 문

헌정보학 내부에서 부르짖었을 때 그럴 듯하게 들리는 '정보'요 '컴퓨터'였지 넓은 경쟁의 마당에서는 호소력이 적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전체 학계에서 발언권을 획득하는 데는 대체로 실패한 듯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보'와 '컴퓨터'에 관한 발언의 소유권 경쟁에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듯하다. 한편 이 땅에서 '정보'와 '컴퓨터'에 관한 발언의 소유권은 그 대부분의 지분이 전산정보학자, 경영정보학자, 언론정보학자에게 가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것은 대학, 기업, 언론, 정부와 청와대의 발언과 처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그들의 안중에 문헌정보학자는 거의 없다. 우리 쪽에서 내세우는 '정보'와 '컴퓨터'는 그들의 눈에 별로 차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경쟁을 위한 우리 학문의 교두보로 삼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고 느껴진다.

방책이 있는가?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무엇인가? 지금은 우리 분야에 학생이 모이지 않거나 빠져나가는 상황이란 점을 기억하자. 그런데 관찰되는 바로는 '위기'의 학문을 관리하고 있는 주역들의 행태가 전술적으로 별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그들은 문헌정보학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것을 공고히 하는 일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다른 한편 그들은 전산학에서 벌어진 이류 전산정보학, 경영학에서 벌어진 삼류 경영정보학, 언론학에서 벌어진 사류 언론정보학의 꼬트머리를 붙들고 우리 분야의 한 복판에 들어와 그것이 마치 우리 학문의 실체라도 되는 듯이 고향을 친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축적해온 우리들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할 도서관적 정신과 기법을 와해시킨다. 과연 우리 학문의 장래가 이와 같은 태도 속에서 보장

될 수 있겠는가?

우리 학문의 위기는 그 연구자들이 학문의 고유한 실체를 붙들지 못하는데 그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문헌정보학의 본질을 외면한 채 그것이 마치 전산학, 경영학, 언론학과 같이 이른바 사회적으로 뜨는 분야의 일부이기라도 한 것처럼 환상을 가졌던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특수를 노린 사행심이었다. 그들은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양 추수주의자들이었다. 우리의 문헌정보현실은 그들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인데도 학문은 그들의 것을 모방해 가려고 하였다. 현실은 다른데 언어는 같았다. 이것 역시 외적으로 화려한 유행의 배를 타고자 한 허위의식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보'와 '컴퓨터'는 부차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실체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만 위치시켜야 한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이렇다 할 발언권의 지분마저 없지 않은가? 거기에 너도나도 에너지를 다 사용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에너지는 우리 문헌정보학의 실체의 규명과 그것의 실현에 집중적으로 퍼부어져야 한다. 그렇게 규명되고 확립된 우리 학문의 실체를 바탕으로 오히려 다른 학문 분야와 협조하며 공헌하는 단계에까지 도달시키는 것이 오늘 문헌정보학 연구자에게 부과된 사명이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실체와 수단의 위치가 뒤바뀐 지금의 사태는 역전되어야 한다.

이제 묻는다. 문헌정보학의 실체란 무엇인가?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도서관적 정신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Allan D. Pratt의 표현을 빌린다면 한마디로 기록자료(graphic records)의 수집-보존-조직-확산(Collection, Preservation, Organization, Dissemination = CPOD)의

연속체이다. 이 연속체를 강화하고 현대화·첨단화 시켜나가는 일이 실체와 관련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우리는 실물자원(physical resources) 중심으로, 그리고 전적일 필요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기관(institution) 중심으로 사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 땅의 사정은 서양과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끔 모델로 삼는 유럽과 북미의 경우 19세기 후반이래 백 수십 년에 걸친 장구한 기간 동안 현대적 의미에서의 도서관(library)과 도서관학(library science)의 이름 밑에서 팔목할만한 현장과 깊고 넓은 학문의 실체를 쌓아올린 경험과 전통이 있다. 지금 그들의 말과 실행은 그것의 기초 위에서 있다. 우리에게 그 기초가 아주 없거나 매우 허약하다. 우리의 학문의 연륜이라고 해 보아야 이제 겨우 40여 년, 현장은 지금 겨우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 앉는 참이다. 이처럼 기초가 없거나 약한 상태에서 탈실물자원화, 탈기관화가 제창되고 시도되었을 때 그것은 자칫 우리 분야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웃마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 때 기록자료에 대한 온전한 CPOD의 기능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며, 그 일부 기능이 도서관이나 정보센터가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이 때 문헌정보학 연구자들과 현장의 도서관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말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선부른 주장이 엄청난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으며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우리 학문의 생존을 위하여 우리 연구자들의 몸 속에 잔뜩 들어와 있는 거품을 빼내야 한다. 성과와 기약이 미약한 공격적 경영 자세는 이쯤에서 멈추어야 한다. 미련스런 '정보 타령', '21세기 염불'도 그만둘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방어적 태도의 미덕을 배워 익힐 필요가 있다. 우리 문헌정보학의 내부와 전통의 깊은 곳에 축적되어 있는 실체와 관련 있는 정신과 기술을 표면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을 시대에 맞도록 변화시켜내는 과업에 온 몸으로 매달려야 한다. 사실 우리에게 CPOD 작업과 관련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이론과 실천이 그다지 잘 개발되어 있지 않다. 제대로 된 문헌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앞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 학문의 선구자들인 이봉순, 이춘희, 리재철, 천혜봉, 심우준, 김세익, 김두홍, 정필모, 최달현의 말과 경험 속에 담긴 실체에 다가설 줄도 알아야 한다. 눈을 돌려 Williamson, Ranganathan, Butler, Shera, Pratt, Foskett, Harris, Gorman의 발언의 실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좁은 문'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 학문의 생존은 가능해질 것이다. 번영마저도 거기에서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는 한에서 문헌정보학에는 일찍이 '넓은 문'은 없었다. 세계의 어디서나 그것은 사회의 전면이 아닌 배후에서 중소규모의 방어형 경영이었다. 우리가 잘 나가는 전산학, 경영학, 언론학의 세를 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는 오히려 차별화의 전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